

15국가직9급 경제학개론 사책형

1. ①

① 곡선을 따라 위쪽으로 이동

② (Y-T) 증가 - C 증가 - IS곡선 우측 이동 - 주어진 P 수준에서 Y 증가 -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

③ M 증가 - LM곡선 우측 이동 - 주어진 P 수준에서 Y 증가 -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

④ G 증가 - IS곡선 우측 이동 - 주어진 P 수준에서 Y 증가 -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

[팁]

총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: 재정정책, 통화정책

총수요곡선 상의 이동 : P의 변화

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①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다.

2. ③

돼지고기 수요의 닭고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

= 돼지고기 수요 변화율/닭고기 가격 변화율

∴ 닭고기 가격 변화율 = 돼지고기 수요 변화율/교차탄력성 = 10/2 = 5

3. ③

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상승의 경우 고정된 금액을 받는 쪽이 불리해진다(실질가치가 감소하므로). ex) 고정된 금액을 주는 쪽인 채무자는 실질채무 감소하므로 유리

② 가격을 조정해야 하므로 메뉴비용 발생

③ 상대가격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유지되지 못한다.

④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실물로 교환하려는 과정에서 구두창비용 발생

[팁]

상대가격이 변하면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파괴된다. 따라서 ③은 문장 자체가 틀린 표현이므로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다.

4. ②

① 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득은 불균등하다.

② 소득수준이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진다.

③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% 계층소득의 상위 20% 계층소득에 대한 비율이다.

④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은 소득분배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불균등하다가 성숙단계로 들어서면 균등해진다고 본다.

5. ①

①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정책이다.

②, ③ 비례세, 소득세 모두 소비와 관련된 재정정책이다.

④ 재정적자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 시점에 조세를 거두는 것과 같다.

6. ④

- ㄱ. 기술진보를 외생변수로 본다.
- ㄴ.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을 가정한다.
- ㄷ. 인구증가를 상승은 1인당 자본량 및 소득을 감소시킨다.
- ㄹ. 기술진보는 1인당 자본량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.

7. ③

- ① 일물일가 법칙을 전제한다.
- ② 절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 $P = EP^*$  이므로 재화 간 상대가격인 실질환율은 1
- ③ 단기적 변동보다 장기적 추세를 더 잘 설명한다.
- ④ 국산품의 가격과 수입한 재화의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교역이 안되는 재화가 많을수록 설명력이 떨어진다.

8. ④

명목임금경직성 이론에 의하면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실제 물가가 예상 물가와 달라지면 실질임금이 변화하여 노동수요량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산출량이 변화한다. 실제 물가수준이 예상물가수준보다 높으면/낮으면 실질임금(=명목임금/실제 물가수준)이 감소/증가하여 고용이 증가/감소하고(노동수요가 실질임금과 반대로 움직이므로) 생산량이 증가/감소한다.

9. ②

독점기업 이윤극대화 :  $MR = MC$   
 $P = 30 - Q/2$   
 $MR = 30 - Q$  (MR곡선은 수요곡선과 가격축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)  
 $MC = 2Q$  (TC를 Q로 미분)  
 $30 - Q = 2Q$   
 $Q = 10$

10. ③

조세수입 = 세금부과 후의 거래량\*1대당 세금  
 세금부과 후의 거래량 = 1000만/5만 = 200대  
 ∴ 자중손실 = 거래량 감소분\*1대당 세금/2 = (250-200)\*5만/2 = 125만 원

11. ②

시장실패 : 공공재, 불완전경쟁, 외부효과, 정보 비대칭 등

12. ④

- ① 항상소득이론은 소득은 고정적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고 본다. 복권 당첨은 임시소득이므로 대부분 저축하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항상소득이므로 소비에 사용하게 된다.
- ② 항상소득가설은 소비의 평준화를 목표로 한다.
- ③ 생애주기이론은 소득수준이 일생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.

④ 생애주기이론에 의하면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고 청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다. 따라서 소득에서 소비를 뺀 부분인 저축은 역U자형으로 나타난다.

13. ④

① 그레샴의 법칙은 역선택 문제를 설명한다.

② 적절한 기업들을 골라내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면 채무지불능력이 좋지 않은 기업만 남게 된다. 이러한 역선택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대신 이자율 이외의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(신용할당). 이 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나타나므로 채무지불능력이 양호한 기업인데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.

③ 명성이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

④ 주인-대리인 문제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관련이 있다.

14. ②

노동가능인구 = 경제활동인구 + 비경제활동인구 = (취업자 + 실업자) + 비경제활동인구

경제활동참가율 = 경제활동인구/노동가능인구

경제활동인구 = 노동가능인구\*경제활동참가율 = 1200만 명

∴ 실업률 = 실업자/경제활동인구 = 120만/1200만 = 10%

15. ①

자산(단위 : 만원)	부채 및 자본(단위 : 만원)
대출 8000	예금 8000+x
지급준비금 x	

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의 금액과 부채와 자본계정의 금액은 같아야 한다.

지급준비율 = 법정지급준비율 + 초과지급준비율 = 20%

그런데 이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이므로

$$x/(8000+x) = 0.2$$

$$x = 2000$$

$$\therefore \text{법정지급준비금} = \text{예금} * \text{법정지급준비율} = 10000 * 0.1 = 1000$$

16. ④

마샬-러너조건에 의하면 환율 상승이 순수출이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.

17. ③

① 음(-)의 관계에 있다.

② 단기적으로는 음(-)의 관계에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과 상관없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정하게 된다.

③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. 경기침체 시 실업률이 상승한다.

④ 장기 필립스곡선의 이동은 자연실업률의 변화 이외에는 설명하지 못한다.

18. ④

① 감자 생산의 기회비용은 농부는 1/2 고기, 목장 주인은 2/3 고기이므로 농부가 비교우위가 있다.

② 농부의 경우에 감자 생산에 시간이 덜 소요되므로 절대우위가 있다.

③ 고기 생산의 기회비용은 목장 주인은 1.5 감자, 농부는 2 감자이므로 목장 주인이 비교우위가 있다.

④ 절대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.

[팁]

고기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같다. 이는 어느 한쪽이 절대우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. 그러므로 ④를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다.

①과 ③은 동시에 맞거나 틀려야 한다(어느 한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으면 다른 재화는 상대방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므로).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다.

②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.

사실 딱히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이다.

19. ①

변동환율제도 :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만 일으키고 효과가 없다.

통화정책은 통화량 변동으로 인한 순수출 변화로 효과가 매우 크다.

고정환율제도 : 통화정책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되돌려야 하므로 효과가 없다.

재정정책은 환율 변화를 막기 위한 통화량 변동으로 효과가 매우 크다.

[팁]

자유로운 자본이동, 고정환율제도,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삼위 불가 능성 정리만 기억하면 바로 도출할 수 있다. 전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.

고정 통화정책 효과 X - 고정 재정정책 효과 큼 - 변동 재정정책 효과 X

고정 통화정책 효과 X - 변동 통화정책 효과 큼 - 변동 재정정책 효과 X

20. ③

단순 계산 문제이므로 생략